

사무엘기상·하

메시지 9 (계속)

8.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으로 일해 넣어지며,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교회를 통해 표현되신다.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신다 — 엡 3:20-21.
- F.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영과 태도와 기도와 믿음을 보여 준다.
1. 계시에 의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울에게 알려졌다(엡 3:3-6). 따라서 그의 영과 태도, 곧 그가 본 것과 말한 것과 그의 마음속에서 관심을 기울인 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는 것에 관한 이상과 관계 있었다.
 2. 바울은 이 이상에 완전히 사로잡혔고, 이 이상이 그의 영과 태도가 되었다.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기록된 (믿음의 영역과 요소 안에서)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이다.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시는지에 관한 이상을 보았다면,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바울의 영과 태도와 기도와 믿음을 가질 것이다.

결정 연구 개요

메시지 10

다윗과 므비보셋과 하나님의 인자하심

성경: 삼하 9:1-13, 롬 2:4, 엡 2:7, 4:32, 딤후 3:4-5, 골 3:12

I. 사무엘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에 관한 기록이다.

- A.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 사울 집안에 남아 있는 어떤 후손이 있다면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껴서, 사울 집안의 종에게 “사울 온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자가 있는가?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자 하네.”라고 말하였다 — 삼하 9:3상.
- B. 그 종은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아직 살아 있는데, 그가 다리를 전다고 말하였다 — 삼하 9:3하.
- C.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친절을 베풀겠다고 말했으며, 그의 할아버지의 온 땅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고 그는 항상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— 삼하 9:7, 13.
- D. 다윗왕은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고, 그에게 그의 모든 유업을 돌려주었으며, 그를 초대하여 자신과 한 상에 앉아 마음껏 먹게 하였다 — 삼하 9:7, 9.
- E. 다윗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므비보셋에게 주었다. 므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었으며 ‘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었다’ — 삼하 9:9, 13.

II. 므비보셋은 은혜를 받을 근거가 없었지만 은혜를 받았다. 우리와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사실이 적용된다.

- A. 므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위치가 조금도 없었다 — 삼하 9:1-6.
 - 1. 그가 친절을 입은 것은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었다 — 삼하 9:7.
 - 2. 하나님 앞에서 죄인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— 롬 2:4.
- B. 므비보셋이 살았던 곳인 ‘로드밭’은 ‘풀밭이나 목초지가 없는 장소’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이다. 오늘날 세상은 ‘로드밭’이다 — 삼하 9:4.
 - 1. 다윗에게서 도망친 므비보셋은 풀밭이 없는 곳, 곧 생명 공급이 전혀 없는 곳에 살고 있었다 — 삼하 9:4.
 - 2.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죄인 또한 풀밭이 없는 곳에 살고 있다.
- C. 므비보셋은 다윗을 찾지 않았지만,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 므비보셋을 데려오게 하였다 — 삼하 9:4-5.
- D. 다윗이 “므비보셋이여.”라고 불렀을 때, 그의 마음에는 동정하는 느낌이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즐거운 어조가 있었다 — 삼하 9:6-7.

사무엘기상·하

메시지 10 (계속)

1. 다윗의 말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— 삼상 16:7.
2. 다윗의 마음은 인자함과 동정으로 가득했다 — 삼상 20:14-15.

III. 영적으로 말해서, 우리 모두는 사울왕의 손자(삼하 4:4)이자 다리를 저는 므비보셋과 같다.

- A. 비록 므비보셋이 자주 왕과 함께 정찬을 먹었지만, 그의 두 다리는 여전히 절었다 — 삼하 9:7.
- B. 므비보셋은 다윗에게서 은혜를 입은 후에 오직 다윗의 상에 있는 풍성만을 바라보았다. 그는 상 아래에 있는 자신의 저는 다리를 보지 않았다.
- C. 므비보셋처럼 우리도 여전히 다리를 절지만 왕의 상에서 정찬을 먹을 수 있다 — 삼하 9:13.
 1. 우리의 두 다리는 절뚝거리지만 ‘상 아래’ 있다.
 2.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우리의 ‘저는 다리’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,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 앉아 그분을 누려야 한다 — 삼하 9:7, 롬 14:17, 느 8:10.
 - a.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절뚝거린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낙심하게 된다 — 비교 야 2:8-3:5.
 - b. 우리는 주님의 상에 있는 풍성만을 바라보며 그 풍성을 누려야 한다 — 엡 3:8.
 3.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차려 놓으신 것은 놀랍고도 풍성하고도 달콤하다.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먹는 것이다 — 요 6:50-51, 53-57, 마 8:11, 22:2, 계 19:9.
- D. 우리는 자기 성찰로부터 돌이켜 주님을 주목해야 한다 — 히 12:2, 2:9.
- E.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차려 놓으신 풍성과 은혜만을 바라볼 때, 우리는 평안이 가득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— 마 5:6, 14:20.

IV.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베푼 친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상징한다 — 삼하 9:3, 롬 2:4, 엡 2:7, 딤후 3:4-5.

- A. 인자함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나오는 자상한 미덕이다 — 엡 2:4, 7.
- B. 우리가 구원받고 다른 이들과 다르게 된 것은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— 딤후 3:4.
 1.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준다.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— 딤후 2:11, 3:7.
 2. 디도서 3장 5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한다.
 - a.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은혜보다 더 멀리까지 미친다 — 롬 9:15-16, 18, 23, 히 4:16.

결정 연구 개요

메시지 10 (계속)

- b. 우리의 가련한 상태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는 넓은 간격이 생겼다.
 - c. 하나님의 긍휼은 이 간격에 다리를 놓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으로 이끌었다 — 롬 2:4, 9:23.
3. 디도서 3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은혜에 대해 말하지 않고, 인자와 사랑과 긍휼에 관해 말한다.
- a. 사랑은 은혜의 근원이다. 요한일서에서 우리는 은혜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진다 — 요일 3:1, 4:9-10.
 - b.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. 이 사랑이 아들을 통해 표현될 때 이 사랑은 은혜가 된다 — 요 1:14, 16-17.
 - c. 인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의 하나님의 태도이다 — 엡 2:7.
 - d.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인자가 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은혜를 얻는다 — 딤후 3:4-5, 7.
 - e.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인자를 베푸셨으며, 이것에 의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— 딤후 3:4-5.
- C. 다가올 시대들, 곧 천년왕국 시대와 영원 미래의 시대에 하나님은 ‘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푸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’을 보여 주실 것이다 — 엡 2:7.
- 1.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— 엡 2:8.
 - 2.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베푸어 주신 그분의 은혜의 풍성은 모든 한계를 초월한다 — 엡 2:7.
 - a.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자신의 풍성이다 — 엡 3:8.
 - b.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베푸어 주신 그분의 은혜의 풍성은 영원히 공개적으로 보일 것이다 — 엡 2:7.
- D. 인자는 그 영의 열매의 한 항목이다 — 갈 5:22.
- 1. 우리는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에(골 3:10),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를 옷으로 입어야 한다(12절).
 - 2. 사도 바울은 인자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으며,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계속 머물라고 당부하였다 — 고후 6:4, 6, 롬 11:22.
 - 3. 사랑은 친절하다(고전 13:4).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며,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 용서해야 한다(엡 4:32).